

한국의 건축가 10 - 배기형(완)

Korean Architect, Bae Gi-Hyeong

그의 작품세계(3), 증인들의 증언

원정수 /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
by Won Jeong-Soo

일반적으로 건축가의 명성은 시각적인 감동을 느끼는 외관 또는 내부공간에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철골구조물의 특수 부분에 있어 명설계자로 알려져 있는 건축가에게는 어떻게 극장설계가 해석되어지는가 하는 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에 단성사와 중앙극장을 소유하였던 벽산그룹의 김인득 회장은 일제시대 건물 구조인 단성사극장 증축설계를 배기형에게 맡기게 된다.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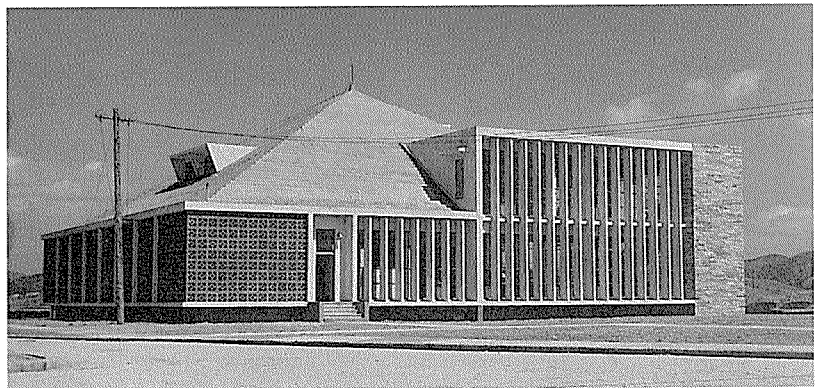
단성사 증개축 (1955년)

무대 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분에 좌석을 증설하고 영사막과 무대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증축됐다. 영화 스크린이 시네마스코프로 대형화되고 관람자의 시선 각도에 따라 바닥의 경사각도가 무대 쪽으로 역경사로 올라가는 물매를 갖는 특이한 극장 단면이 됐다. 실내공간은 현대건축의 국제적 추세인 음향마감처리로 국내 최초로 목재 수직 음향재인 코펜하겐 리브가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천장은 그물모양의 음향처리의 단순한 구성으로 명쾌한 공간을 연출했다. 서울의 개봉관으로서 오랫동안 명맥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설계였다. 이와 어울리는 전면 외관을 계획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피카디리극장 (1958년)

극장 계획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좁은 공간에 시네마스코프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스크린과 영사실 거리가 짧은 곳에서 관람석을 2개 층으로 배치하여 좌석 수를 많이 두는 것이다. 이때 영사실 위치를 2층 발코니 밑에 두므로써 영화 투사 각도에 따라서 2층 발코니 좌석 바닥 스탠드의 경사는 대단히 높아진다. 항상 극장 기능의 단면 구성, 평면계획 분석에 몰두해 온 배기형의 공간구성 상상력이 더욱 높아갔다.

1.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기록과 자료
2. 그의 작품세계(1)
3. 그의 작품세계(2)
4. 그의 작품세계(3), 증인들의 증언



구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서울 대방동 현 보라매공원 자리에 위치)

을지극장 (1958년)

단성사와 피카디리극장은 서로 마주 보면서 종로 3가에 극장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을지극장은 일반 건물로 형성된 가로에 위치해 있어 외관 정면을 통해 극장인지를 높이려 한 시도가 보인다. 전면 수직 기둥을 독립되게 앞세워 놓고 벽면을 후퇴시킨 입구 공간의 처리는 극장 관람객을 흡입하는 공간 형성의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 이 극장은 판코리아란 이름으로 식당 극장으로 개조되었다가 현재는 휴관되었다(※전편에서 동양염직 진주공장과 을지극장의 건축주를 동일인으로 기술하였으나 각각 건축주가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정정함).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1958년)

윤일주 교수의 한국 근대건축에 관한 논문에 의하면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현 보라매 공원) 교사는 수직적 평활한 교사군을 형성하는 캠퍼스 속에 표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도서관이라는 특수 목적에 따른 권위에서 오는 차이는 하지만 본체를 피라미드형의 대형지붕으로 덮고 그 내부 일부는 막 뿔림의 반2층으로 돼있어 밝고 시원한감을 주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삼각형의 피라미드와 장방형의 사각형을 관통시킨 조형구성을 창출한 건축가 배기형의 의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배기형은 구조설계자로서 한국 건축가의 위치를 굳히며 건축가 현역들과 교분을 나누면서 자신의 건축디자인 능력과 야심을 검증하면서 건축창작설계를 풀어 나갈 때 발상되어진 것이다. 피라미드 지붕 처리에 있어 계단형 슬라브로 방수를 해결한 점은 대구 제일모직 공장의 콘크리트 쉘구조에 도전하는 예고라고도 느껴진다. 외벽의 스크린 처리의 부록벽처리와 열람실의 유리 커튼월은 정교한 디테일로 구성하여 정돈된 세련미를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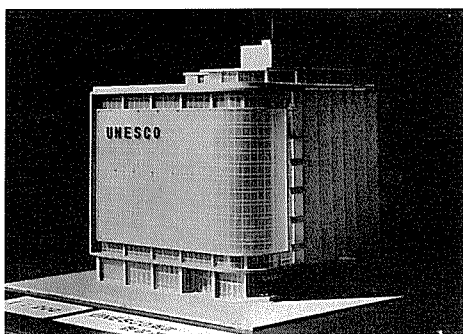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1959년)

대구 제일모직 공장, 부산 제일제당 공장 설계가 성공을 거두고 삼성계열인 한일은행의 모든 지점을 설계하게 된다.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설계도 이 때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흥은행 남대문지점은 일반은행의 정형을 벗어난 특수한 해결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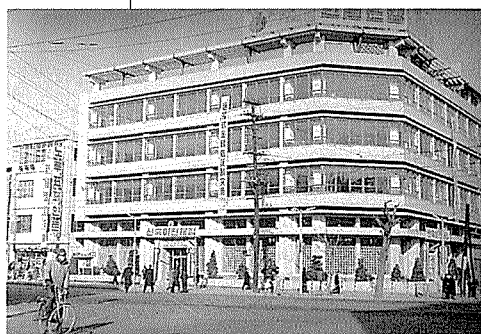
여주고 있다. 은행의 영업장은 입면을 수직적으로 표현하는 저층 상부에 기준층으로 구성되는 유리 외벽 커튼월의 입면을 올려 놓고 유리부록의 계단실, 그리고 옥상 파라펫트를 1개층 과장시킨 입면의 세요소로 구성시킨 건물매스와 옥상 돌출부에 수직과 수평 매스로 구성된 기생건물을 모아 놓은 무리한 외관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모더니즘의 심미관으로서 매듭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배기형이 이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에 밀려든 포스트모더니즘의 암시를 느끼게 하지만 그가 획일적이고 단순한 구성의 모더니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때 주류를 이루던 국내 모더니즘 디자인 건축물들의 마감과 디테일이 수공업적 모조 처리로 그 품위가 떨어지는 여들에 대한 비웃는 마음이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는 자연석 외장재를 현대감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테라조로 대역미감하여, 자기질 타일 면이 외장의 주조를 이룰 때였다. 여기에 수공업제품의 유리새시의 커튼월을 디테일로 그릴 때 건축가의 상설계 저력에 의해 건물세련도를 가능했다. 또 유리부록과 콘크리트 유공부록으로 스크린 벽처리 하는 것 또한 모듈과 입면구성의 다양성을 첨가한다. 이를 설계에서 그려나가는 작가의 흥미와 열의를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유네스코회관

윤일주 교수 논문의 한국근대건축에 의하면 1961년대, 규모가 크고 문제성이 있던 건물의 하나로 유네스코회관을 들었다. 당시 규모가 크고 새로움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1955년 3월에 착공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완성되자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스럽게 명동 변화가의 경관을 어지럽혔다가 1965년에 다시 시공되어 1966년 12월에 준공된다. 총 4,116평에 지상 11층 높이로 극장과 백화점을 수용하는 사무 빌딩 규모는 당시 한국에서는 대형건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밀도 도심지인 명동거리의 경관을 주도하는 건물스케일로 변화가의 보행자들에게 다양한 위치에서 상대하는 입면으로 해결되어진 점에서 설계자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구조사 배기형, 이천승의 협력체제와 화려한 인력들의 조직으로 절정기를 보여주는 시기이다. 현상 설계 당선(오웅석 소장의 증언란 참조)에 이어 실시설계 또한 김



유네스코 회관(서울명동) 모형



한일은행 을지로지점(현재는 유리전면을 커튼월로 개조하여 원형을 볼 수 없음)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창서, 이최영(작고), 김진균(재캐나다), 최영규(현 인하대 교수)등 환상적인 실무진이 단시일내 만들어내 저력을 보여준 작품으로 건축계 등 구조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일은행 을지로지점 (1960년)

당시 은행지점 건축은 영업장 기능을 중심으로 단층규모가 일반적이었으나, 을지로지점은 오피스빌딩 규모의 은행지점이다. 1층은 영업객장 천정고가 높은 공간이므로 층고가 높은 입면을 구성하되 수직기둥의 높이가 상부 사무층의 3개층 높이와 입면구성이 불안정하므로 1층 외관에 교창의 수평띠를 두르면서 수평선의 입면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창대의 수평띠를 강조하기 위해서 입체감의 음영효과를 높이고, 옥상 파렛트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건물의 단순성을 피하면서, 도로 가로경관의 지루함을 없애는 시도가 역력하다. 특히 이건물의 특징은 구조계획에 있으며 무량판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이며 천정 높이를 낮추고 천정 속의 기계 덕트를 위한 효율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구조이다. 이때 마침 세종로에 위치한 미국대사관이 미국 건축가에 의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것을 겨냥하였고, 한국적 구조해석으로는 처음으로 시도된 성공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때 구조를 담당하였던 최영규(현 인하대) 교수는 시공자의 콘크리트 배합과 타설이 부실시공되던 타성에서 벗어나 위험한 과정을 극복하는 설계, 감리에 충실하여 만든 작품으로서, 지금도 을지로지점 건물을 보면 구조가 꿰뚫어 보인다고 회상한다.

중앙일보사(서소문 구관, 1964년)

삼성그룹의 발전사는 건축가 배기형의 성장과정과 맥을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건물은 신문사, 방송국의 두가지 기능을 수용하는 소위 매스컴 센터이다. 배기형은 공장건축설계에서 공장생산설비의 새로운 기능을 위해서 건물설계를 해결하였으므로 매스컴 기능을 갖는 건물 역시 그에게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신문 인쇄 운전기의 진동과 소음방지, 여기에 밀폐 음향공간의 스튜디오, 첨단방송기자재의 기능을 건축과 결합시키는 설계를 완성하므로써 구조사 설계조직에 저력이 높아졌고 이를 경험한 멤버들은 경제성장으로 생겨나는 첨단 전자 통신 방

송 기능의 설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가가 된다. 건물의 입면과 외장의 구성은 삼성그룹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경우도 그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카톨릭대학 (1971년)

배기형은 천주교 신도가 되면서, 카톨릭 성당의 설계에 관여하게 된다. 혜화동의 대학 캠퍼스 플랜을 계획하게 되고, 여기에 각 건물을 설계하게 된다. 특히 도서관 건물은 배기형이 심혈을 쏟은 작품으로 전해지는데, 이때 관여했던 박행일, 박은영의 증언으로 건물의 내용을 밝혀 볼 수는 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다만 노출표면의 콘크리트 조형 건축을 다루는 건축가는 불란서의 르꼬르뷔제와 일본의 단게 겐조의 경향속에 크게 영향받은 김중업, 김수근의 열풍속에서도 건축가 배기형이 세밀한 디테일로 마감되는 조형구성에 열중하던 모습을 바꾸어 노출표면 콘크리트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된 시기라는 점을 들고 싶다.

서울농협본소 (1973년)

종로 대로에 세워진 단순한 입면을 보여주는 기능적인 오피스빌딩이다. 단스판의 콘크리트 구조로 사무공간을 해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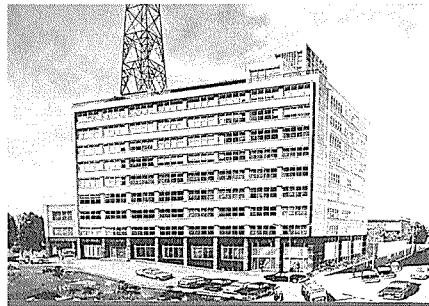
평소 배기형의 조형의지로 설계하던 모습과 비교하여 생각하면 설계과정에서 제작되어지는 진행과정을 철저히 따지며 간섭하던 끈기가 바뀌어지면서 단순조형은 즉 모더니즘으로 흐르도록 방임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주택설계

철골구조설계의 달인으로 평가되는 배기형에게 주택설계가 많이 다루어졌다. 삼성그룹의 이병철회장의 장충동주택, 부산 동래주택 등 공장 또는 대형 프로젝트에 곁들여서 주택설계가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주택계획 설계에 많은 흥미를 쏟으며 오랜 시간 몰두한다. 평면은 공간구성의 개념보다 각실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재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입면계획에서 새롭고 참신함을 구하고자 젊은 건축입문자를 지도하며 재능을 발굴하는 과정으로 삼고 이를 통해 젊은 건축 수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서울 종로1가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10층, 지하2층 연면적 5,540㎡ 규모로 건축됐다.)



중앙일보사(중앙일보·동양방송은 구명청은 서울 서소문에 위치해 있다 / 지상9층 지하2층)



카톨릭대학 도서관(서울 혜화동 /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330㎡)

련자들과 즐거움을 나눴다. 그러나 마감처리와 세부적인 건축요소만은 반드시 그가 완성하려 했다. 청운동 자택이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증인들의 증언

· 장기수. 현재 동인건축사사무소 소장(부산) - 배선생이 가장 가까이한 사제 관계이며, 해방 전 후의 활동상을 증언할 수 있는 분이다. 필자가 소속했던 공군본부 기술과의 선임자이며 배선생에게서 전수 받은 설계경험을 바탕으로 공군 시설의 기틀을 닦는데 공헌한 선배이다. 배선생의 전기를 정리하기 위해 수차례 걸쳐 전화 통화를 나누어 담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선생은 일제시대 부산공업고등학교(당시 부산 직업학교, 건축과) 1회 졸업생이다. 동기생으로는 유광택씨가 있다. 졸업후 부산시청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뒤 일본의 아와다 제철소의 니시지마 설계사무소로 옮겼다. 만주의 안산제철소에 증설할 광석 사이로 설계를 위해서 출장하는 활약상을 들었고, 일본에서 설계한 청사진을 관람하였는데 배선생의 설계 실력에 감탄하였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해방후 귀국하여 모교 부산공업의 강사로 출강하면서 설계사무소 활동을 하였으나 당시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설계분야가 부진하자 친우와 협력하여 건설회사에서 부사장으로도 활동하였다. 전무는 김중근(?)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윤인구 부산대학교 총장의 의뢰로 부산대학 교사건물을, 현 자갈치시장 근처에 설계하였는데 배선생의 원만한 교우관계로 활동이 넓었다고 한다. 설계활동무대가 서울로 옮겨지면서 배선생의 동향인 중앙건설 조회장의 권유로 부사장을 역임하고 동화부동산의 부사장직으로 관여하며 전철사업을 구상하는 경험도 쌓게 된다. 그 뒤 본격적인 설계활동은 인천제철 관계 설계로부터 전개되었다. 가족관계는 사업으로 유복한 형님과 가정이 불안정한 동생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 이동진. 현재 한민건축사사무소 대표 - 배선생의 친우이며 그의 작품활동을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며 비평도 나누던 교분이 두터운 이로 나란히 건축가협회 부회장도 역임했다. 필자는 신건축문화연구소 시절(1955, 6년)에 볼 수 있었던 선배 건축가 활동상 가운데 멋지고 세련된 건축가였으며 배선생과 함께 활동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다음의 글은 이동진 선생 친필 회고록을 정리한 것이다.

- 전 략 - 그의 성격은 의리를 존중하며 표면상은 쾌활하게 잘 웃고 남을 잘 웃기지만 마음을 열어주는 편은 아니었다. 그의 고향은 경상남도 김해이고 나는 경상북도 상주이다. 그리고 서로 양반집안의 옛조상의 가계족보를 모신 가문이지만 지금은 평범한 가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어딘지 그에게서 는 가문의 기골이 풍겨짐을 느낄 때가 있었다.

그의 결혼생활은 불행하였는데 아마 서너번 재혼

을 해야만 했고 그 내막은 가까운 친우들만 알고 있다. 그러한 내면세계가 있었기에, 명량한 성격임에도 어딘가 우수가 스며 있었다. 그를 작고하기 한달 전에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결혼생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고 토로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건축가로서 자신이 설계한 집에서 살았던 행운을 누렸다. 청운동에 있는 70평 규모의 자택이었으며 만년에는 옥인동에 있는 공동 목욕탕을 구입하여 아담한 안채를 곁들여 크게 개조한 뒤 이곳으로 옮겨 정양을 하게 되었으나 끝내 이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당시 친우들은 “후로야노 오야지(일어로 목욕탕 주인이란 뜻)”라고 놀렸으나 “결결”하며 유쾌하게 웃던 얼굴이 기억에 떠오른다.

- 중 략 - 그러나 그가 작고할 때까지 15~16년 동안, 어떤 때는 바로 옆에서 또 어떤 때는 어깨너머로 그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기에 감히 평어닌 평을 한다면, 첫째, 그는 철저히 현실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건축가였다고 본다. 따라서 심한 기교를 부리거나 장식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둘째, 화려한 예술성보다 실용성을 중시했다. 셋째,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작품을 대했으며 바쁘다고 불성실한 작품을 생각하지 않았다. 넷째, 구조역학적면을 대단히 중요하게 쳤었다. 다섯째, 설계도면은 기술적 요구의 표현이지만 도면자체가 아름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철골구조 도면이라 할지라도 윤택한 느낌이 흘러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등등이 그의 작품에 대한 소신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는 실용성, 합리성을 중시하는 작품 취향과 인간적 매력 때문인지 그의 고객은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삼호그룹의 조봉구 회장, 벽산그룹의 김인득 회장 등 재계의 거물들이 많았고 따라서 우리들은 건축설계계의 재벌이라고 농담을 건넬 만큼 부러워했으며 실제로 우리사이에 술을 사는 빈도도 제일 많았다. 그가 술을 살 때에는 반드시 한 번은 술값을 못 내겠다는 시늉을 했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받으면 “왜 이렇게 비싸” 하는 것이 말버릇이었다. 그때를 회고해 보면 1960년대 초기였으며, 년배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건축가협회 간부들의 모임만큼 즐겁고 재미있었던 시절은 다시는 없었다고 기억된다. 金在哲, 金熙春, 鄭寅國, 姜明求, 金昌集, 宋旼求, 咸性權, 裴基滢, 嚴德紋, 그리고 나(李東鎭)와 어울렸다. 그는 성실한 성격이었음에도, 친우들과 어울릴 때는 좀 야유적 태도와 표현이 특이하여 그것이 매력적이고 언제나 중심인물의 한사람이었다. 그래서 함께 지내기가 재미 있었다. 그러나 남을 돕기를 좋아했고 나도 큰 도움을 받았던 일이 있었다.

그가 작고한 지도 어언 18년이 흘렀고 요즘의 감각으로 젊은 나이라고 보는 62세에 가버린 그의 인생이 안타깝기만 하다. 더욱이 나는 그가 떠나기 2,3일전에 간경화증 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던 모습. 또한 그와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고열과 고통의 고동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차라리 빨리 가고 싶다” 고

말하던 그의 표정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를 돌보는 사람은 조카벌이라는 낯선 젊은 청년이 있을 뿐이어서 더욱 쓸쓸해 보이는 병실이었다. 그가 남긴 건축설계계의 공적에 비하면 너무나 적적하였고 그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이 모여 성대했지만 나에게서는 역시 쓸쓸한 하루였다.

· 김창서. 현재 협화건축사사무소 명예대표 - 1955년부터 10년간 배선생의 건축과 동반한 그의 분신과 같은 증인이다. 본론을 집필할 자료를 몸소 체험하고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에게 의뢰한 자료는 대부분 대화로 나누었고 이를 본 시리즈에 일부 반영되었으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학계에서 그와 연대하여 연구가 이어져 더욱 충실한 역사자료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 다음은 그가 관여하였던 설계 프로젝트의 메모자료이다.

제일모직 대구공장 (면방공장, 방적공장, 염색공장, 기숙사 등), 동양염직사 진주공장, 삼풍제지 창동공장, 영월화력 (본관, 저탄장, 입체테러스 구조(저탄장)), 대구 육군군의학고 (JCA), 동신화학 안양공장 (도금공장 (전기분해공장)), 호남비료 나주공장 (기숙사, 저탄장), 공군사관학교 (체육관, 3Hinged Structure, 도서관, Pyramid Type), 대구 항공창 (격납고, 자재창고, 100,120,160 feet Span), 석굴암 이중 Dome (습기제거를 위한 이중 Dome), 단성사 개수, 피카디리극장, 중앙극장 개수 (2층 관람석 목조), 흥업은행(현 한일은행, 신촌, 을지로, 대구서, 영도, 제주, 광주, 창신, 부산서지점),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UNESCO회관, 충주비료 (기숙사), 장안빌딩 화재사건(2회), 인천제철 (평로, 분과공장, 기타), 일신제강 영등포공장 (Pipe 구조), 중앙일보사 건물(구), 제일제당

· 오웅석. 현재 신조건축사사무소 소장 - 공군에서 예편하고 이천승씨의 권유로 1959년 구조사에 합류한다. 유네스코 현상설계와 남산 국회의사당 현상설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배선생을 회고한다. 다음 글은 대화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1958년 종합건축에서 분리된 이천승선생이 배기형씨와 합류하면서 그의 수행 멤버도 대거 구조사로 이적하게 된다. 이때 이선생의 권유로 구조사에 입사하자 현상팀에 가담한 것이 유네스코회관 현상설계였다. 현상팀으로 구성된 멤버는 이동진, 오웅석, 윤도근, 오윤환(작고)이며 약 3,4개월 동안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동진씨의 스마트하고 세련된 건축적기량으로 팀을 이끌어 나갔으며 각자 열심히 몰두했다고 회고하며 당시 본인은 투시도를 그렸다. 입면도의 기본개념은 좁은 명동골목 가로환경 조건에서 만들었으며 우수한 입면은 이동진씨의 세련된 안목으로 완성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유네스코회관 현상설계안이 당선되어 구조사의 명성을 높이자 곧 이어서 남산 국회의사당 현상설계팀이 구성되었고, 약 3개월 동안 계획작업에 몰두된다. 이때 배선생이 지도하던 열의는 뜨거웠으며 건축가적 자질이 뛰어남다는 점을 깊이 느끼게 하였다. 계획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경우는 칼질하듯이 단

호하며 주로 기능적인 문제에 철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낙선되었고 본인은 배선생에게서 떠났다. 표현상의 효과위주의 건축설계보다 건축적 내면적 내용의 충실성을 더 중시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정도를 지키는 건축을 주장하였다. 배선생에 대한 존경심이 깊이 새겨진다.

· 최영규. 현 인하대 교수 - 신건축문화연구소 시절과 1958년부터 62년까지 구조사에 근무하는 동안 배기형 선생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당시 설계했던 중요한 프로젝트는 공군 대구기지 격납고, 유네스코회관, 한일은행 을지로지점, 제일모직 대구공장 등이 있다(설계프로젝트에 관한 증언자료는 해당 건물 해설에 인용되었으므로 생략함).

- 배선생님은 실무에 밝아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안목이 뛰어났다. 일례를 들면 아침 일찍 출근하여 직원들의 제도판을 돌아보고 퇴근시에 다시 돌아보면서 각자의 설계 작업량과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곤 하였다.

- 항상 자기일처럼 일을 하면 작업능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하였으며 그 능력은 3~4 배의 성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는 체험자이다.

- 그는 다정다감하고 무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매사에 충실했으며 원리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순박하고 꾸밈없는 성품이었다.

· 김일진. 현 영남대 교수 - 1959년 남산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당시 구조사팀에서 현상응모 안을 계획하면서 배선생의 주장과 지도를 받으면서 체험한 그의 건축관과 건축가상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구조사 현상 응모안은 내부실내공간의 자연채광 등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전체 건물면적이 규정을 초과하였다. 그래서 면적수치를 조정하여 제출하려고 하자 배선생의 양심선언은 단호하였는데 “나는 거짓말 모른다(못한다)” 그대로 제출하였으나 예심에서 낙선되고 말았다. 배선생은 열심히 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재주 부리지를 앓고, 거짓말은 못하는 건축가로 단정 지을수 있다.

지금까지 등장한 증인들은 건축가 배기형의 왕성한 건축활동시기인 1960년대까지 전반기에 있었던 일화를 전하여 주므로 그의 건축가상을 생동감있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드는 후반기에 있었던 그에 대한 일화를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은 다음과 같이 젊은 세대로 바뀌어진다.

· 박행일. 현재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대표 - 1965년 서소문의 중앙일보사옥 건설현장에서 설계 지원에 참가하면서 1971년 여의도 통일회관 현상설계때까지 구조사에 재직하면서 건축가 배선생의 후반기 활동상을 지켜 보았던 증인이다. 그러나 관여했던 설계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메모에 그쳤기에 건축역사자료로 발전될 일화에 관해서는 다음기회에 학계와 연대하여

연구가 깊이있게 계속되기를 바란다. 박소장이 보내온 메모에 기록된 설계프로젝트는 1965년 중앙일보사옥, 1966년 유네스코회관, 전주제지공장, 일관제지공장, 1968년 농어촌 개발공사, 농수산물 유통센터 기본설계, 경향신문사옥(실시설계완료 사업중단), 1970년 성북동 서씨주택, 연희동 이씨주택, 1971년 서울타워 기본설계(철골구조, 현남산타워 건우사 장종울 설계), 1971년 카톨릭 대학, 1971년 통일회관 현상설계 당선(여의도, 사업취소) 등이다.

1960년대 후반, 1970년 이전까지의 기간은 건축가협회 활동으로 대외관계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시기다. 따라서 전반기에 보였던 건축설계작품에 열중하며 직접 작도하던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구조사에 의뢰하는 설계 프로젝트도 저조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1970년대는 윤희갑에게 운영을 떠맡기고 구조사와 자유로운 관계를 갖고 새로운 건축생활을 꿈꾸다가 건강악화로 쓰러지게 되는 과정을 다음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동배**(안하대) 교수, **이문섭**(안하대) 교수 - 군복무 예편후(1966, 7년) 구조사에 입사했으며 당시는 설계 프로젝트가 많지 않아 사무소 운영에 활기를 잃을 때였다고 한다.

명성이 높았던 건축가 배기형에 대한 옛날의 참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 **조건영**. 현 건축사사무소 기산 소장 - 배선생은 늦게 출근하여 자기와 자주 바둑을 상대하였다고 한다. 건축가 배선생은 젊은 건축 후배를 이해하고 좋아하였으나, 대우가 박하여서 2, 3년만에 자주 떠나는 분위기였다고 말한다. 구조사를 거처간 수많은 건축인은 김영철, 손 식, 민중식, 손학식, 장응재, 박형삼, 곽은영 등 헤아릴 수 없다.

1976년에 구조사를 윤희갑 소장에게 물려주고 난 뒤 떠나는 배선생의 행보는 김석철(아키반)소장과 방수일(범일건축)소장의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 **김석철**. 현재 아키반 소장 - 배선생이 건축가협회 회장일 때 가협회지, 현대건축 창간을 제작하였으며, 이때 배회장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돌연 전화로 배선생의 호출을 받고 술자리를 함께 했다. 가족관계를 따져 보니 배선생과 김소장 부친의 친우와 막역한 관계여서 더욱 배선생의 호감을 질게 하여 김석철설계사무소에 발걸음이 잦아진다. 이때 김진균(현 서울대)교수, 이상해(현 성균관대)교수 등 멤버들과 어울리자 산업은행 지명현상설계 건물 김석철사무소에서 제작하기로 제안하여, 구조사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사양하였으나 이미 배선생의 마음은 구조사를 떠나 있었다. 현상설계 진행에 들어가자 매일같이 참견하며, 계획안의 세밀한 문제까지 따지는데 열중하며 생각이 넘치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김중업씨는 계획안의 기틀만 합의하면 실

무진이 제작한데 반해서 배선생은 끝까지 3개월 동안 꼼꼼하게 챙겼다고 한다. 배선생은 “건축의 생명은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현상결과는 당선에 실패하였으나, 건축가가 성실하게 몰두하며, 실제의 건축물을 다듬는 듯이 세밀히 분석하면서 계획과 설계를 완성하던 배선생의 모습을 회상한다. 중동건설 붐이 일어나자 벽산그룹 건설연구소가 구성되는데, 여기에 김석철 설계팀을 합류토록 유혹하였으나 방수일과 몇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쳤다.

· **방수일**. 현재 범일건축사사무소 소장 - 김석철설계사무소에서 산업은행 현상설계를 마치고 한국건업의 건설기술연구소가 설립되어 배선생의 주재 아래 한상목(현 삼우)과 함께 연구원이 되어 프리렉브 연구에 열의를 쏟게 된다. 그러나 중동건설에서 타격을 받게 되어 연구소가 위축되어진다. 이때 배선생의 건강도 악화되어 암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회복이 양호하였다. 마침 동해필프 사택단지 계획을 맞게 되어 다시 생기를 찾고 울산 현장을 답사하는 등 계획에 열중하다 과로를 자초하여 더욱 병세가 악화되고, 영원히 건축계를 떠나게 됐다. 돌이켜보면 선생은 엔지니어가 뛰어난 분이며 매사에 앞서가는 분이였다.

건축가 배기형의 글을 마치면서

건축사지의 특별시리즈 기획에 의해서 방치되었던 한국근대건축역사의 참모습을 바로 찾고, 세우는 목적에 따라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배선생의 업적과 우리에게 남겨준 건축적 유산을 올바르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죄책감에눌려 있던 때 타의에 떠밀려 배선생을 다시 찾았으나 이미 사라진 흔적이 되어버린 채 아무리 둘러 보아도 그의 진가를 밝히기에는 불가능한 과거로 묻혀 버렸다. 다행히 증언들의 내용을 모아 배선생을 추모하는 뜻을 담은 시도였으나 건축가 배기형의 전기를 기록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그에 관한 글을 매듭지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본다. 구조의 무관심과 소홀한 기초위에서 건축의 형태와 공간을 꿈꾸는 사상누각의 건축이 남무하는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르네상스의 완성은 논리적인 분석과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의 꽃이 피었다. 한국적 상황을 직시하며 우리의 건축을 밝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해 본다. 한국근대건축역사 연구의 조명을 보다 폭넓게 살피면서 시대상과 깊은 관련을 관찰하는 연구 시야를 가지면서 보다 밀도를 가져야 한다. 철골구조의 정체를 보다 비중있게 건축계에서 연구 개발하여 미래건축에 대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누구보다 깊이있게 열정을 태우며 건축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던 건축가 배기형 선생의 자취를 되새겨 본다.